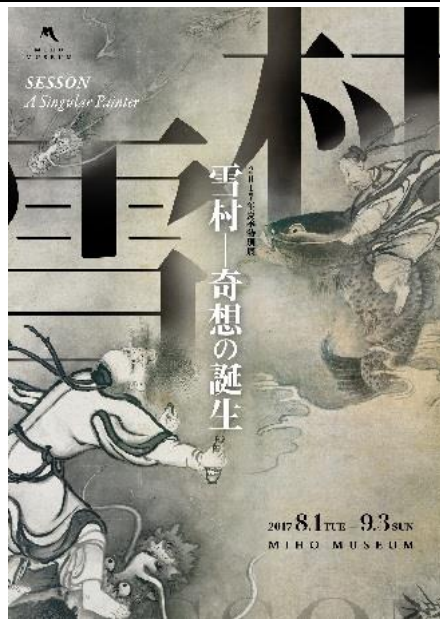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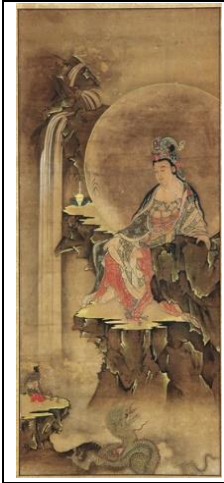
셋손은 무로마치 후기부터 전국시대에 걸쳐서 도후쿠 지방에서 활동한 화가스님입니다. 히타치노쿠니(常陸国) 지방에서 무가 사다케(武家・佐竹)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선사(禪寺)에 출가하여 많은 그림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50 세 무렵 간토(関東) 각지를 여행하다가 아이즈(会津)에서 오다와라(小田原), 가마쿠라(鎌倉)에서 호조(北条) 씨가 가지고 있던 중국 그림이나 절에서 전하는 작품을 보면서 독창적인 표현 기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60 세 후반부터 아이즈(会津), 미하루(三春)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80 세 후반 붓을 놀릴 힘이 없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셋손이 살던 때는 중국 그림이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셋손이 그린 사람 그림이나 산수 그림은 전통적인 양식을 벗어나 파격적이며 드라마틱했습니다. 자쿠추(伊藤若冲, 1716.3-1800), 쇼하쿠(曾我蕭白, 1730-1781.1),

로세츠(長沢 芦雪, 1754-1799.7), 구니요시(歌川国芳, 1798.1-1861.4) 등의 작품에서 보이는 기상 천외한 실마리가 셋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동식물을 소재로 그린 작품은 매우 사실적이며 목숨에 대한 자비로움이나 섬세한 느낌이 느껴져 변환자재(變幻自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셋손의 생애나, 독창적인 화풍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간토(關東), 도후쿠(東北) 지방에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카타(尾形光琳, 1658-1716)가 셋손을 좋아하여 유명한 그림들을 정중히 베꼈고, 셋손이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석인(石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세 일본 가노파(狩野派, 15-19C.) 화가들은 셋손 그림을 바탕으로 그것을 계승하여 생겨났습니다. 가노(狩野芳崖, 1828-1888)나 하시모토(橋本雅邦, 1835-1908)는 셋손 작품을 몇 번이고 베끼면서 독자적인 표현을 익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외국에 있는 작품을 포함하여 셋손의 중요 작품 80 점을 소개합니다. 그밖에 셋손의 영향을 받은 후세 화가 작품 30 점도 같이 전시합니다. 스님 화가 셋손의 작품을 통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동빈도(金大受 呂洞賓圖), 119.2× 59.6,奈良・大和文華館

여동빈은 팔선 가운데 한 분으로 인기 있는 중국 신선입니다. 당 나라 때 살았던 사람이지만 종리권(鍾離權, 雲房) 선생님을 따라서 수행하다가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열선전(列仙傳)에 나온대로 허리에 표주박을 차고, 등에 칼을 메고 있는 그림이 일반적입니다. 남송 때 그려진 여동빈과동정도단선(呂洞賓過洞庭圖团扇) 처럼 칼을 메지 않고 물결 위에 선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셋손이 그린 작품은 용머리를 탄 여동빈이 손에 물병을 들고, 용을 승천시켜 하늘에서 용과 대치하는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그림 속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임진(林進) 씨는 남송의 임정규(林庭珪・周季常等筆《五百羅漢圖》)나 원 나라 때 전하는 안휘(顔輝筆《白描羅漢圖》)를 예로 들어 이 특징적인 그림이 나한도(羅漢圖)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16 나한 가운데 용을 다스리는 존자는 물병에서 용을 꺼내서 승천하는 용과 대치합니다. 남송 때 김대수(金大受)가 그린 16 나한도도 덧붙여 볼 수 있습니다. 여동빈을 그리면서 나한도에서 본 용머리를 타고 물병에서 새끼용을 승천시키는 기발한 발상 자체가 셋손의 독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를 방출하는 몸, 방사상으로 펼쳐진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빛, 센 바람에 펄럭이는 옷, 좌우로 물결치는 파도 등은 셋손의 독창적인 표현입니다.

	2. 폭포를 보는 관음그림(滝見觀音圖), 36.4×85.4, 이바라키(茨城) 쇼주지 절 이 그림은 쇼주지(正宗寺) 절에 있는 그림으로 셋손(雪村周繼, 1504-1589)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쇼주지(正宗寺) 절에 있었던 작품으로 히타치노쿠니 시대 셋손 그림과 수행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14 세기 후반 무렵 고간지(弘願寺) 절에 있던 같은 그림을 본떠서 그렸습니다. 구도, 관음의 머리 보관이나 가슴 꾸미개, 옷 장식이 모두 같습니다. 다만 고간지 절과 다른 부분은 각 모티프가 모아져 있고, 특히 관음과 선재동자가 친밀한 얼굴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쇼주지 절 그림의 바위 옆면이나 위에 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음과 동자의 친밀한 관계와 더불어 고려 불화를 연상시킵니다. 바위 모습도 날카롭고, 새 부리처럼 벌려져 있습니다.
---	--

	3. 장미, 갈대에 고양이 그림, 39.3×30.8, <썬꽃, 대나무에 게 그림> 덮개 상자 안에 있던 구 병풍 첩 8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꽃, 대나무에 토끼 그림>, <화조도> 와 더불어 여덟 병풍 그림첩에 들어있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은 소상팔경도첩(瀟湘八景圖牒)처럼 그림첩 형식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림 네 점과 화조 그림만 남아있습니다. 이 세 작품은 중국 원체화조화(院體花鳥畫)의 사실적인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각 모티프를 조합시킨 참신한 질감의 작품이었습니다.
--	--

특히 썬꽃 대나무 게그림은 제자 쇼안의 게 그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쇼안(性安) 스님은 히타치노쿠니(常陸國) 쇼주지(正宗寺) 절 가까이 고간지(耕山寺) 절에 살았던 셋손보다 한 세대 위 그림 스님이었습니다.

	4. 검은뿔찌르레기 새, 48×26, 東京・常盤山文庫 팔팔조(叭叭鳥, ハハチョウ, ハッカチョウ, 八哥鳥, Acridotheres cristatellus)가 가시 나무나 시누대 앞이 보이는 바위 위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텐분(天文)이라는 연호가 쓰인 것으로 보아서 1556 년 작품입니다. 그림에 쓰인 글씨는 사인도인(四印道人)은 원각사 스님 경초주수(円覺寺僧景初周隨, ?-1557) 입니다.
--	---

무문정인(無文鼎印), 혜몽(惠蒙) 등 도장이 셋 찍혀있습니다. 경초주수(景初周隨) 스님의 글은 「畫師所一掃有八々鳥 / 聖人之周易其卦六十四 / 卦也鳥之類雖多以八々 / 為名奇哉此鳥」입니다. 음양 이원설에 따라 팔괘를 팔팔조(叭叭鳥)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팔팔조는 날개 깃에 하얀 점이 마치 팔 자로 보인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또한 사람 말을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수목화의 대표적인 모티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목계(牧谿, 13C. 송 말)의 팔팔조는 중세 이후 대표적입니다. 그림이 거친 섬유의 돋보이는 종이에 대조적입니다. 몰골기법(沒骨描法, 윤곽선이 없이 직접 붓으로 산 등 형태를 나타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셋손의 글씨는 없지만 붉은 낙관「雪村」이 찍혀있습니다.

	5. 여름 겨울 산수도, 셋손(雪村), 40.5×102, 京都国立博物館 이 작품은 셋손의 독특한 산수도 그림을 집대성한 모습입니다. 여름 풍경을 밝고 환하게 그렸고, 겨울 풍경을 음울하고 거칠게 그렸습니다. 사 계절 가운데 두 폭이 아니고 처음부터 두 철만 그렸습니다. 여름 풍경의 바위 준법(峻法)이 비교적 화려하고 섬세합니다. 양 옆과 위쪽에 20 cm 쯤 다른 종이를 이어 놓았습니다. 처음과 달린 무슨 사정으로 바뀌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모습이 여우롭고 공간 배치에 적합합니다. 두 그림 모두 좌우쪽에 셋손(「雪村」)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이 낙관은 다른 그림(《風濤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풍도도(風濤圖), 31.8 22.1, 京都 野村美術館	원포귀범도(遠浦歸帆圖)	하규(夏珪), 풍우행주도 《風雨行舟圖》
		

작은 그림에 대자연의 맹위를 매우 강렬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셋손의 기발한 상상력과 특색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심한 바람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불고, 왼쪽 갈대집 지붕은 의연합니다. 오른쪽 가운데에는 범선이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감상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지평선이나 수평선이 없습니다. 때문에 동적인 역동성만이 사람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림으로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의 원포귀범도(遠浦歸帆圖)를 들 수 있습니다. 물체를 대각선 좌우에 배치하고, 범선을 멀리 여백 속에 넣어둔 구성은 풍도도의 개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셋손 역시 젊은 시절 소상팔경도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물체의 배치가 불균형입니다. 불균형이 주는 불안감이 작품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그림으로 하규(夏珪, 남송)의 풍우행주도 《風雨行舟圖》가 있습니다(위 사진 맨 오른쪽, 보스톤미술관). 셋손은 전통적인 그림을 보고 배워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새롭고 기발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림 좌우에 사다케씨(佐竹氏) 전래라고 쓰인 것은 그가 지방을 떠돌면서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7. 사각 접시, 사각 그릇, 銹繪寒山拾得圖角皿, 銹繪山水文四方火入, 尾形光琳(1658-1716) 画・尾形乾山(1663-1743) 作



오가타 형제가 같이 만든 작품입니다. 1709 년에서 1716 년 사이에 교토(京都鳴滝窯製)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의 필치와 멋진 풍경이 일품입니다. 도자기는 관상용뿐만 아니라 식기나 일상 용품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여러 곳에서는 무늬나 모양, 색이 다른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자기는 재질이나 태토, 유약이나 장식, 가마 이용 기술 등이 지역이나 만든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오가타는 선조들이 즐겨 그렸던 그림을 도자기에 활용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형인 오가타 고린은 많은 미술 작품을 남겼고, 동생인 겐잔은 도자기 작품에 집중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후기 두 형제가 공동으로 만든 도자기 작품도 많습니다. 양쪽 사각 접시 두 점(W-21.9, H-3.2, D-21.8)은 교토국립박물관에 있으며 가운데 사각 그릇(W-11.6, H-10.9, D-11.5)은 나라 야마토분카간(大和文華館) 미술관 소장품입니다. 사비에(銹繪)는 철사(鐵寫), 철회(鐵繪)를 뜻하며 한산습득도(寒山拾得圖)의 한산과 습득은 천태산 국청사(天台山國淸寺)에 살던 당나라 때 전설상의 인물입니다. 한산 습득 그림은 송나라 때 이후 선승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종과 관련된 설화를 주제로 그린 여러 가지 그림이 남아있습니다.

8.소상팔경도병풍(瀟湘八景図屏風), 16C. W-349.5×D-152, W-352.4×D-159.5,



일본에 전하는 소상팔경도는 셋손을 비롯하여 周文様, 曾我直庵(?-1656) 작품이 있습니다. 소상팔경도는 중국 호남성 장사현(湖南省長沙市)소강과 상강의 두 물줄기가 합해서 동정호로 들어가는 주변을 그린 그림입니다. 소상강의 아름다움은 굴원(屈原, 343?-BC.278 초사를 비롯하여 여러 문학작품이나 그림 속에 나옵니다. 소상강을 읊은 노래나 그림은 유배와 관련된 인간사의 슬픈 사랑, 이별과 은둔, 소외와 한겨의 공간입니다. 소상팔경은 북송 때 송적(宋迪)이 시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소상팔경은 고려 명종(1170-1197) 때 나오기 시작하여 조선 시대에도 크게 유행하여 중국 그림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기도 했습니다.

- ① 평사낙안(平沙落雁) : 평평한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
- ② 원포귀범(遠浦歸帆) : 멀리 강에서 돌아오는 돛단배
- ③ 산시청람(山市晴嵐) : 산마을에 피어오르는 맑은 아지랑이
- ④ 강천모설(江天暮雪) : 강과 산에 내린 저녁 눈
- ⑤ 동정추월(洞庭秋月) : 동정호에 뜬 가을 달
- ⑥ 소상야우(瀟湘夜雨) :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
- ⑦ 연사만종(煙寺晚鐘) : 안개 쌓인 절에서 들려오는 저녁종소리
- ⑧ 어촌석조(漁村夕照) : 강가 마을의 해질 녘 노을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이징(李澄, 1581-?)이 그린 평사낙안도가 있으며 진주 박물관에 소상팔경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밖에 겸재 정선이 그린 소상팔경도와 민화로 그린 것도 있습니다. 진주 박물관에 있는 그림은 일본 다이간지(大願寺, 広島県廿日市市宮島町) 절에 있는 그림과 비슷합니다. 이 그림 뒤에 일본 스님 손카이(尊海)가 1539 년 조선을 다녀갔다고 적혀있습니다. 송희경, 한국미술 산책, 네이버, <http://terms.naver.com/>



진주 박물관에 있는 소상팔경도입니다.



조선 시대 소상팔경도 그림은 종이뿐만 아니라 연적에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 소장